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해 1인분을 배달시켜 먹었다.

사실 직접 해먹는 것을 더 좋아하고, 과식과 낭비를 막기 위해 배달을 최대한 지양하는 편이지만, 코로나 이후 자취까지 하게 되면서 배달시켜 먹는 일이 많아졌다.

이 곳은 지난 번 제육볶음을 시켜 먹고 만족스러워 한 번 더 주문하게 되었다.

이 곳에는 1인메뉴가 있다는 점이 참 좋다. 1인메뉴는 양이 적당하고 가격이 합리적으로 느껴진다.

1인메뉴는 가격이 8000원에서 11000원 사이고, 공기밥과 반찬 3개가 함께 제공된다.

반찬은 매일 새롭게 바뀌는 것 같다.

제육볶음과 오징어볶음에는 된장찌개도 포함된다.

리뷰 이벤트로는 달걀후라이를 두 개 주는데, 1인분은 한 개만 제공한다.

나는 오징어볶음+된장찌개 1인분(9000원)을 주문하고, 리뷰이벤트에 참여하여 달걀후라이 한 개를 받았다.



오징어볶음은 맵지 않다. 오히려 달짝지근한 맛이 강하다.

완성 직전에 넣은 듯한 파와 양파는 색이 선명하고 향긋하며 식감이 살아있다.

양념보다는 오히려 설익은 파와 양파가 맵게 느껴졌다.

오징어는 질기지 않으면서 맛있었다. 국물이 아주 묽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된장찌개에는 꽃게, 고추, 애호박, 양파, 두부, 파, 버섯 정도가 들어 있다.

살짝 짭짤한 게 밥과 함께 먹기 괜찮았다.

게 껍데기는 푹 익혀서 그런지 부드러워서 통째로 씹어먹을 수 있었다.

밥은 딱 헛반 느낌. 맛있었다.

달걀후라이는 흐르지 않은 정도의 반숙란이었는데, 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는지 밥과 함께 먹기 딱 좋았다.

3찬으로는 알감자조림, 깍두기, 사라다(サラダ, Japanese salad)가 왔다.



